

장성쌀 러시아서 고급 명품쌀로 인기

장성쌀이 러시아에서 명품쌀로 인정 받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수출 2년 만에 거둔 쾌거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통합RPC에서 러시아로 수출할 쌀을 출하했다. 이날 출하한 쌀은 NH농협무역을 통해 부산항에서 선적돼 러시아 사할린 코르시코프 항구를 거쳐 러시아 사할린의 쌀시장과 마트 등에서 판매된다.

장성군은 이날 3차 수출분을 포함해 러시아로 지금까지 총 60톤의 쌀을 수출했다. 2년 전 처음으로 러시아로 수출한 장성쌀은 품질이 뛰어나 우즈베키스탄 쌀시장에서 일본쌀을 압도하고 있다. 저가 중국쌀은 장성쌀과 경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장성쌀은 120ha 규모의 쌀 수출단지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생산된다. 신제품 종자부터 품질향상농자재 사

2년만에 60톤 수출...중국·일본쌀 압도 올해 유럽·호주 등 판로 확대 개척 추진

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장성군의 프리미엄 농특산물 브랜드인 '365생(生)'이란 이름으로 판매한다.

장성군은 한국 시장에서 거둔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쏟은 결과 러시아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는데 성공했다.

장성쌀이 해외에서도 명품쌀로 인정 받은 것은 전락적인 노력의 결실이다.

장성군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이 전남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육성한 신제품 '조명1호'를 신속하게 도입해 보급했다. 조명1호는 밥맛이 뛰어나고 찰기가 좋아 고급쌀로 인정받고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농촌진흥청이 국내쌀

수급의 안정과 판로 개척을 위해 추진하는 '쌀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을 유치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마련했다.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러시아 현지 시장조사를 하는 수고도 아끼지 않았다.

장성군은 쌀산업 발전을 위해 2015년부터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 그해 처음으로 수출에 성공했고 2016년부터는 미국과 러시아 시장에도 진출했다. 그간 쌀은 해외수출 역량을 바탕으로 올해 유럽, 호주 등으로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쌀 수출단지에 참여하는 변영연 단지회장은 "밥맛이 좋고 수확량이 많은데



장성군은 최근 장성군통합RPC에서 러시아로 수출할 쌀을 출하했다.

다 재배도 쉬운 신제품을 재배하면서 배농사에 희망을 갖게 됐다"며 "장성쌀이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 등 해외에서까지 인정받게 돼 자신감과 함께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품종 선택부터 재

배기술 확립, 판로 개척까지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매뉴얼을 통해 장성쌀 명품화 시대를 열었다"면서 "러시아 수출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해외시장에 장성쌀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성=전일용 기자

내고장 사람들



김성 장흥군 수는 6일 오전 9시55분 충훈탑광장에서 열리는 제63회 호국·보훈의달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다.



김경호 화순군수 권한대행은 5일 오후 5시 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민주평통 화순군협의회 2/4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5일 오전 9시30분 일로읍에서 열리는 농촌일손돕기 현장을 방문, 격려한다.

“영유아 장난감 빌려주세요”

무안 장난감도서관 하반기 회원 모집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은 오는 7일과 8일 양일간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장난감도서관 하반기 회원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지난해 6월 남악북합주센터 1층에 문을 연 무안군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622종 1,230여 점의 다양한 장난감을 구비하고 있다. 비싼 장난감 구매에 대한 부모의 부담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문화 및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모집 회원들은 회비 1만원을 납부하면 올해 말까지 별도의 장난감 대여비 없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맞벌이 가정을 위해 매주 화요일은 오후 8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회원 신청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가정이라면 누구나 무안군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www.muantoy.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회원 모집 등 자세한 문의의 사항은 무안군 장난감도서관(061-450-4170)으로 연락하면 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무안군 영유아와 부모들이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회원신청을 원하는 문의가 많은 실정이다”며 “앞으로 장난감 보유 및 운영 상황 등을 검토해 회원을 확대 모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장성-학사농장 상생 협력 본격화

학사농장 직영매장서 귀농인 농특산물 판매

장성군 귀농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광주 학사농장 직영매장에서 직거래로 판매하는 등 장성군과 학사농장의 업무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

장성군귀농인협의회 회원 12명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위치한 학사농장 직영매장에서 직접 생산한 사과, 딸기, 표고버섯, 꽃감, 아로니아 등을 판매했다.

친환경 유기농 생산자 조직인 학사농장은 광주·전남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로 자리 잡은 영농조합법인이다.

학사농장의 뿌리는 장성이다.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을 졸업한 강용 학사농장 대표(51)는 지난 1992년 장성이 정착한 후 친환경 농업에 전격 도입한 '학사농장'을 설립했다.

강 대표는 이후 광주에 직영매장을 잇따라 설립하는 등 연 매출 70억원을 올리는 영농조합법인으로 학사농장을 키웠다.

장성군은 지난 2016년 학사농장과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귀농·귀촌인들이 생산한 농특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판매키로 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영광 떡 상품화...전문가 양성 교육

떡 가공업체 대상 퓨전 떡류 20여종 실습

영광군이 다양한 떡 개발과 상품화를 위해 진행한 '떡 전문가 양성교육'이 호평을 받았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총 10회 22명의 관내 떡 가공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리적표시식품인 영광모시잎송편과 함께 상품화가 가능한 퓨전 떡류(모시잎찰떡, 삼색찰편, 보리미네이이크 등) 20여종을 배우는 실습 위주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대한민국 퓨전 떡 요리 전문업체 참새방앗간 조정희 본부장이 맡았다.

교육생들은 “영광모시잎송편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떡을 배울 수 있었다”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퓨전 떡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응용해 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미 지난 2년간 떡 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교육을 통해 업체의



영광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내 떡 가공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떡 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기술 향상과 영광모시잎송편 지리적표시품, 다양한 떡 상품화로 떡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떡 전문가 양성교육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째 추진했으며, 떡 산업 육성을 위해 영광모시잎송편 명품화 및 새로운 떡 상품 개발을 내용으로 진행됐다. /영광=곽윤순 기자

화순 병해충 관찰포 운영

9월까지 벼·고추·복숭아 정밀 조사

화순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주요작목 병해충 관찰포를 운영한다.

4일 화순군에 따르면 병해충 관찰포는 주요 농작물의 병해충 발생상황을 예측

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된다. 주기적으로 예찰을 실시하고, 결과는 병해충 발생 예측 및 적기 방제대책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화순군은 3개 작목(벼, 고추, 복숭아)

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월 2회 병해충 발생상황과 생육 상황을 조사한다. 벼 6개소, 고추와 복숭아 5개소 등 총 16개소에서 병해충 발생시기별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조사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유아등, 포자채집기, 페로몬트랩 등을 활용해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농촌진흥청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한다. /화순=서호영 기자

담양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담양군은 최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은 해수의 수온이 상승하는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지난해 비브리오패혈증 감염자 수는 전국 46명(전남 6명)으로 50%의 치사율을 보였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 또는 덜 익힌 상태로 섭취하거나 오염된 해수가 상처를 통해 감염된다.

특히 만성 간 질환, 당뇨병, 알코올 중독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에서 비브리오패혈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치명률이 높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은 후 익혀서 섭취하기 ▲어패류 요리할 도마, 칼 등은 소독 후 사용하기 ▲피부에 상처 있으면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기 등의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담양=장동원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나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함평 010-3773-2522
- 영광 010-8666-2882
- 무안 010-3621-8989
- 화순 010-3666-5888
- 장성 010-3666-1300
- 담양 010-4154-8277
- 장흥 010-3613-6114

클릭! 고향 소식



무안경찰 치안만족 보고회

무안경찰서는 최근 경찰서에서 '치안고객만족도 향상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됐던 경찰청 치안고객만족도 전화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했으며 각 기능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토론했다.

이윤신 무안경찰서장은 “주민접촉형 치안활동 강화 등 맞춤형 치안정책 시행으로, 군민이 최고로 편안한 무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암 보직교직원 안전교육

영암군은 최근 영암농협하나로마트 회의실에서 관내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직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육교직원이 알아두어야 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장 한선희 강사를 초빙해 아동학대의 유형,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전달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보다 더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암군어린이집연합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대 전국 고교생 백일장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는 최근 목포대 70주년 기념관 및 학내 일원에서 제36회 전국고교생 백일장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64개 고등학교에서 21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백일장 대회와 더불어 목포대 순수 문예창작 동아리인 '풀잎문학'의 시화전이 함께 열려 문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또 목포대 국어국문학과 이훈 교수가 “좋은 시는 어떤 시인가”라는 주제로 문학 강연을 했다. /목포=강성우 기자



함평 드림스타트 체험 캠프

함평군은 최근 드림스타트 아동중 초등학교 6학년생 16명을 대상으로 해외체험캠프를 진행했다.

학생들은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해외 중심지였던 중국 상해를 방문, 대한민국 임시정부청사, 윤봉길 의사 의거지 및 상해 옛 거리 등의 명소를 체험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윤예중 기자